

미국내 한국학 도서관계(圖書館界)의 최근 동향

編輯者註：梁基伯先生은 20餘年前 渡美하여 몸 마우스 大學에서 政治學士, 아메리칸 大學에서 行政學碩士, 가톨릭 大學에서 圖書館學碩士 學位를 獲得하고 現在 美國圖書館의 韓國部長으로 奉職하면서 韓國圖書館發展에 많은 貢獻을 하고 있다. 1965년에 韓國에 관한 資料蒐集次 一時 歸國하여 館界人事들과 모임을 가진 바 있다.

필자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도서관 동료 여러분에게 최근 미국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일을 알려 드려서 고국에 계신 여러분들의 후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요즘 필자는 3월에 있을 <동양학회>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보통 AAS라 함) 참석 준비로 바쁘게 지내는 관계로 사전만 추려서 좀 요령이 없는 것 같으나 급한 마음으로 이와 같이 씁니다.

작년 12월 7일 <동아일보>에 실린 하바드 대학도서관 한국부 책임자 김성하 씨가 쓴 “미국의 한국학 연구; 시애틀 회의에 참석하고”라는 글로 이곳 한국관계 도서관의 최근 움직임을 읽으신 분들은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회의의 뒷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성하 씨가 말했듯이 이 시애틀 회의야말로 미국에 있어서의 한국관계 도서관에서 일하는 우리들에게는 획기적인 행사의 하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의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들을 위한 조직체가 구성되었고, 또 우리들이 정기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 우리들의 공동 문제를 가지고 의론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이 마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애틀 회의를 주관한 <한국학 공동위원회> (Joint Committee on Korean Studies; JCKS라 약함) 안에 <자료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Materials)를 설치하고 학자와 한국서지 전문가들로 구성을 보았으며, 또 JCKS는 동양학회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AAS라 약함) 안에 있는 <동양도서관위원회> (Committee on East Asian Libraries; CEAL이라 약함)에 일본이나 중국처럼 한국관계 자료 소위원회를 두게 해 달라고 건의해서 <한국자료 소위원회> (Subcommittee on Korean

미 국회도서관 양 기 백

Materials)가 CEAL의 최종결정이 끝나 조직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 JCKS는 포오드 재단의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 소위원회의 운영이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JCKS의 소위원회 위원장은 Ruth Krader 여사(시애틀 워싱턴 대학 동양도서관장)가 임명을 받았고 위원으로는 다음 6명이 위촉을 받았습니다.

고혜승 여사 (예일 대학)

Joyce Wright 여사 (하와이 대학)

김성하 씨 (하바드 대학)

Edward Wagner (하바드 대학)

John Jamieson (Berkeley에 있는 거주대학) 및 필자입니다.

그리고, CEAL의 소위원회는 CEAL 위원장으로 부터 필자가 위원장으로, 고혜승 여사와 Krader 여사가 위원으로 지난 2월에 각각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두 위원회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이곳 미국내 한국학을 뒷받침하는 우리 나라 자료에 대한 공동적 해결 방안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즉, 몇 가지 예를 들면,

1. 미국에서 도서를 포함한 한국자료 수집에 관한 문제
2. 참고 자료와 서지 목록 등 작성 문제
3. 국제 간의 교류, 특히 한국도서관협회와의 협조 모색 등등 을시다.

그럼, 우리는 위에 말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예를 들어 말하자면, 첫째 우리의 고민의 하나인 우리 나라 말 로마자 표기법의 통일된 이용인 바 이는 McCune-Reischauer 제도를 “우리 나라 말 띄어 쓰기”에 어떻게 적용하는가이요, 다음은 도서목록 작성자, 사서, 그리고 학자들이 믿고 쓸 수 있는 한국 현대작가사전과 서지 목록 등을 작성하는 일이고, 또 미국에 있는 우리 도서관의 근본 문제인 한국에서의 도서 수집 문제로 구입과 교환 등의 수집방법 알선 그리고 서지의 안내와 본국과의 연락을 취하는 일이며, 또 마지막으로 한국도서관협회와 어떻게 하면 좀 더 계통이 있는 협조로 서로 도움이 될까 하는 따위 을시다.

위에 말한 가운데 로마자 표기법이나 참고자료 등을 만드는 계획은 이곳에서 재정적 뒷받침이 있어 개별적

으로 처리될 줄 알지만, 도서 수집과 한국도서관협회와 연락의 체계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참여로만 이루어지고 또 성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애틀 회의록을 보면, 이 곳에 있는 한국관계 도서관들은 모두 우리 나라 대학과의 교환으로 장서를 늘리는 일에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도서관에는 교환에 필요한 책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만일 우리 나라 도서관이 자체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자기 힘으로 교환사업을 추진하면 최근 미 대사관 문화관 Carl Bartz 씨의 “한미 서적교환안”에 의하여 재정적 뒷받침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안”은 비밀에 속하는 것은 아니나, 시기 상조인 것 같아서 공개하는 것을 보류합니다. Bartz 씨가 직접 우리 한국도서관협회와 연락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럼,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도서관을 육성코자 애쓰는 이들이 무엇을 본국에서 구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글의 유산”을 망라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시애틀 회의에서 열거된 종류를 여러분의 참고로 적어 보겠습니다.

1. 책(교서와 총서를 포함)
2. 사본(MS)과 문서(등사한 것 포함)
3. 축차 간행물과 신문(비매의 기관 간행물 포함)
4. 지도, 음악의 단편물과 레코오드 그리고 인쇄된 사진
5. 마이크로 필름
6. 학위논문(석사, 박사 학위)
7. 정부 간행물(지방정부 포함)
8. 연구원, 각 사회 경제 단체, 학교 등의 간행물(지방 포함)
9. 아동 도서
10. 교과서(초, 중, 고등학교)
11. 회구 도서와 비매품
12. 목판, 활자, 도구(글 쓰는, 종이 만드는 등등)

만일 여러분들이 각 도서관에 이 우리 나라 보화를 간직하고 여벌을 만들어 이곳 도서관들과 교환하게 된다면(제본을 다시 해서) 책이 부족한(한국관계 연구도서) 이 때에 얼마나 귀중한 자료가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있는 도서관은, 서양 책 10 만권 있는 곳보다 우리 눈에는 더 부러운 곳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 나라 기관과의 협조 문제입니다. 위에 말한 Bartz 씨 안 외에도 이 달 초순에(3월) 일본에 있는 미 대사관 소속 도서관 전문가 T. Welch란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이 방면의 가능성을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벌써 여러분과 만났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이번 여름에 콜럼비아 대학 한국학 교수 Gari K. Ledyard 박사가 동대학 한국도서관 책임자 김주봉 씨와 같이 고국을 방문할 것이고 Penn. 대학 교수 이정식 박사가 또한 귀국하게 될 것입니다.

이분들은 모두 우리 나라 학계와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겠는가를 조사한 후 JCKS에 보고키로 되어 있습니다. JCKS의 구상은 한국에 있는 한국학 학자를 포함한 한국학 국제 회의를 갖고자 함이 아마 그들의 첫째 과업인 것 같습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도서관인들 중 “한국자료” 전문가와 행정책임자들도 반드시 참석해서 그들로 하여금 학계의 동향과 필요성을 같이 느껴 학자들이 필요한 자료를 앞을 내다보고 길 안내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물론 이 문체는 JCKS에 추천하고자 합니다)

오는 3월 21—23일 사이에 Philadelphia 에서 동양학회(AAS)가 모입니다. 이 때 우리 두 위원회가 모여 앞으로의 사업 착수에 대한 의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 안이 나왔는데 이 중 무엇이고 간에 채택되면 여러 분들에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양학회는 그 창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관계 위원회가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JCKS와 고혜승 여사의 계획인 <한국자료 자동화 촉진 위원회>도 같이 모입니다. (고 여사도 여름에 고국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쓰는 것은 우리와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앞으로는 우리의 협조도 이런 방면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알립니다. 즉, 지난 해 11월에 세 사람으로 구성된 미국 대표가 일본 도서관 협회와의 협력을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를 찾고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이 대표는 ALA와 CEAL 대표로 구성되었는데 그 사명의 표방은 International Library Cooperation 입니다.

간단히 그들의 (ALA와 JLA의) 과업의 대상을 소개하면,

1. 도서관 전문가들과의 정보 교류(예를 들면 두 나라의 도서관회의 등에 대표 파견)
2. 동경에 소위 <서지 본부>(Bibliographical Center)를 설치하고 일본의 사본과 문헌 정리, 이용 및 알선
3. 정부 간행물의 국내외에 대한 효과적 배부
4. 서지 목록 편성의 자동화 문제
5. 두 나라 도서관인들의 공동연구(예를 들면 일본에 있는 사본(MS) 정리와 목록 작성 등)
6. 도서관인을 위한 연구비 조달 등등입니다.

필자는 이런 문제가 우리 나라에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는 모르겠거니와 분명히 이 방향으로 나가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실례로는 우리의

위원회 구성이 그 한예요 또 하나는 고혜승 여사가 미국립과학원에서 근 10 만분을 받아서 소위 한국 사회과학도서 자동화 목록작성 사업이 그 예입니다. 이는 자연 우리 나라에도 앞으로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이걸 뒷받침한 한 가지를 참고로 적어보면 지난 1월에 Yale 대학에서 고혜승 여사 주관으로 사계 권위 20 여명이 참석한 “자동화 문제 회의”가 있었는데 이 때 본관의 MARC Project (MARC는 Machine-Readable Catalog) 책임자가 회의 석상에서 말하기를 MARC Project가 한국에도 설치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즉석에서 혹 이 안은 시기상조 아닐까요 했더니 고혜승 여사는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실제적 운영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지금 필자 역시 고 여사와 같이 가능한 결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제도의 도입보다 우리(한국도서관)의 자체 정비가 있는 후에 있을 일이 아닐까 하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우리도 발전할 수 있는 기회와 대상이 있다는 것만 먼저 알려드리고자 쓴 것 뿐입니다.

그럼, 외국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본국 우리 동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연 문제가 될 듯합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많은 의견과 생각이 항상 머릿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필자가 외국에 있다는 사실과 또 여러분보다 우리 나라 사정을 잘 모르는 것과 경험이 부족하므로 솔직히 이를 토로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필자가 찾은 원리를 말해보면 우리 도서관계에서는 외국에서 일어난 이 모든 일에만 대비코자 어떤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근본 문제를 생각해서 자기 자체 안에 외국에서 협조를 구하든 안하든 뚜렷한 “한국도서관”의 확립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될 줄 압니다. 그럼, 한국도서관이란 무엇인가 하면 어디까지나 한국의 자료로써 이루어진 도서관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만일 이것만 형성이 되면 마치고 별과 나비가 먼 곳에서도 꽃을 보고 찾아오는 것처럼 자연 외국에 있는 문화인들이 여러분들의 안내를 구할 것입니다. 좋은 예로는 지난 3월 1일로 사무효과를 본 소위 Shared Cataloging 사업을 보십시오. 일본 말

로 된 일본에 대한 자료(책 등)가 많아 이걸 하루 속히 알고자 본관과 일본에 Shared Cataloging Division (분담 도서 목록 편성부)을 설치해서 도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소위 “고등교육법안”을 통과 시켜 (1965) 거기 Title II에 이에 대한 재정적 뒷받침을 규정하고 있기에 Title II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도서관계에 학자들이 참여하여야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앞으로 학자의 앞을 서야 하겠는데 이렇게 하려면 항상 그들의 원하는 것을 알아야 하며 또 그들이 못하는 걸 메꾸어 주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도 서지학에 훈련을 받은 학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목록 작성을 친히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손을 잡아서 좀 더 학문의 본연에 우리 자신을 끌고 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준비되던 우리나라 도서관인들이 재정적 원조를 받아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공동의 이익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위신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우리 나라 도서관은 짧은 시일에 많은 발전을 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눈부신 수고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 발전 도상에 조금 더 추워서 우리가 걸고 있는 길이 혹 잘 못 들어 오지는 않았나, 또는 가되 방향이 잘 못 되지 않았나, 다시 한번 사방을 돌아다 볼 때가 왔고 또 그만큼 여유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지혜(도서관인과 학자들)를 동원해서 공공연한 Symposium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도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난 한국학문제도 이 취지로 작년부터 학회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저 유명한 말처럼 인생은 늘 재검토해야 하는데 어떤 기관에도 이 말이 해당할 줄 압니다. 이는 잘 못 해서가 아니라 한층 더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자가 느낀 바를 기탄 없이 알리고 본국 동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會員諸位

지난 3月 7日 原因不明의 火災로 因하여 本會配付函資料의 一部가 燒失되었습니다. 그로 因하여 많은 心慮를 끼친 것을 悚懼스럽게 생각하며 慰勞電文을 보내주신 會員님들 및 慰問金을 보내주신 延世大學校圖書館長님과 淑明女子大學校圖書館長님께 深甚한 謝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燒失된 一部 配付函資料는 이를 補充하는데 最善을 다 할 것이오며, 將次 不意의 事故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하여 徹底한 豫防措置를 講究할 爲計이오니 放念하시유기 바랍니다.